

[98 JCC(예수공동체 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

[본문: 요한1서 3:8] 최영기 목사 / 페이지수: 6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교회를 다닐 때는 능력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능력을 간구하게 됩니다.

능력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찾아갑니다.

능력의 근원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근원은 그런데 있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파멸시키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위해 귀신을 쫓으시는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근본적으로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 한 마디로 마귀를 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하고 말씀하시면 빛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것을 없이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야 멸하라'라고 말로 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치루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큰 희생을 치루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마치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대 한국의 기독교 성장은 참으로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의견도 있고 훌륭한 지도자를 이유로 꼽기도 합니다. 모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기독교가 유래 없는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6.25때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70년대의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른 살에 주님을 알게 되었고 마흔 두 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조부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23년을 목회하시고 6.25동란 때 납치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감옥에서 옥고를 치루셨습니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이 감옥에 있었지만 조부님은 반혈이 심해 거의 죽게 될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풀려 나왔습니다.

조부님은 감옥에서 나오신 후에 식사를 잘 하지 못하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료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한쪽에는 성경을 한쪽에는 교인들 주소를 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있는 동료들보다 더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이런 희생을 치루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희생이 없는 교회성장은 없습니다.

급속도로 퍼지는 역사 뒤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희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온누리 교회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기술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룰 수 있는 희생을 다섯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희생이 들어간 기도 생활

첫 번째 희생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왜 희생이 됩니까? 그 이유는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들 모두 기도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늘 바쁜 일상, 끝내야 할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 해야 할 일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런 희생을 거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40일 새벽기도 등 기도 후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도에도 있지만 잠자고 싶고 쉬고 싶은 욕구를 포기하는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라는 고린도전도 5장의 말씀에 기초하여 설거지를 할 때, 운전할 때 등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제가 있는 휴스턴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한국인 1만 8천 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인구이동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저희교회 성도는 1백 20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주님이 가라시니 가지만 한국인 이동인구가 거의 없다하더라도 1주일마다 한 명 이상씩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침례를 한 사람이 3백 96명입니다. 예배 출석인원도 4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남 침례회 총회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매일 4시간 기도하신다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매일 새벽 5시 15분부터 8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저희 교회가 복음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능력은 희생에 있습니다. 희생이 들어간 기도생활을 하셔서 능력 있는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나오는 희생인 '금식'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은 금식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금식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 성회를 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소리가 나며 블레셋 사람이 도망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역대하 10장에서는 암몬과 모압이 연합하여 유대를 쳐들어 왔을 때 여호사밋이 금식을 선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여 패하고 맙니다. 에스더 4장에서는 하만이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때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을 금식하며 민족을 하만의 마수에서 구출해 냅니다.

금식은 능력이 나오는 희생입니다.

저는 금식을 오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몇 일을 해보지만 땃새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합니다.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 할 때 금식을 합니다. 신년이 시작될 때 전교인이 하루 금식을 합니다. 20일 작정 아침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아픈 분들이 있으면 2,3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등 필요할 때마다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창하게 금식하지 않더라도 삶 가운데 큰일을 만날 때마다 아침 한끼나 하루라도 금식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의 능력

세 번째 능력이 나오는 우리가 치룰 수 있는 희생에는 '현금'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옵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북 이스라엘은 남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 쿠데타가 일어나 왕이 계속 바뀌는 등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남 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나라의 왕을 비교해보면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도 나쁜 왕들이 많았지만 남 유다에도 이에 못지 않는 나쁜 왕들이 많았습니다. 대개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 왕조가 계속 바뀌었고 남 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내가 왕위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후대에까지 계속되었던 능력

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의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의 삶을 살펴보면 이런 능력이 나올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다윗은 헌금의 희생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군인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상처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성전건축 재료가 역대하 22장에 나옵니다. 금 10만달란트, 은 1백만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금 10만달란트를 제가 계산해 보았을 때 약 3조원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미뤄보았을 때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성전건축을 위해 바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물질의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의 능력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능력을 갖길 원하십니까? 희생이 담긴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실 때 마다 희생을 담으십시오.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의 희생

네 번째 희생은 가정생활입니다. 특별히 독신으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도 7장을 통해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독신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신부나 수녀 지원자들이 점점 줄고 있고 이의 대안으로 신부와 수녀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와 수녀가 결혼한다면 카톨릭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이 이만큼의 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신부와 수녀들이 자신들의 가정생활을 희생하고 독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신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희생을 감당하여야만 능력이 나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제 아내가 심리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가난하게 자랐던 제 아내를 자라오면서 두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난에 대한 공포증과 생활력 없는 남자에 대한 증오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자신이 싫어하는 두 가지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갈등이 심했습니다. 제 아내는 자신이 가난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을 자녀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겠다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내 만족과 야심을 위해 목회를 한다면 내가 우리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제가 목사가 됨으로 교회에 싫증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해주셨습니다. 제 자녀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정의 희생이 없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사역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설혹 일찍 죽는다고 할지라도 제 아내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합니다.

순교와 능력

다섯째 희생은 순교입니다.

순교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될 뻔했지만 이것이 세계종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테반의 순교사건입니다.

스테반의 순교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었고 헬라파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기독교가 세계종교가 되게 된 계기입니다.

스테반의 순교의 능력은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만드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희생은 순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순교의 영광을 맞이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목숨을 바치는 순교는 못하지만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죽으며 ‘긴 순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매 해마다 죽어가는 ‘긴 순교’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나의 계획과 꿈, 욕망이 죽고, 나의 자존심과 자아가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저의 인척 중 한 분은 중국 사천성의 영어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1년간 현지인들과 함께 살며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었을 때 현지에서 섬겨주셨던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식사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에 초대된 사람 중 그 학교의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는 하버드대학에서 핵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유학시 그리스도인이 된 그는 공산당원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중국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기를 거부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공산화 된 후 그리스도인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점점 늘어나 이제는 약 8천 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목사도 성경도 선교사도 없었던 그때 교회가 없으니 신도들은 가정에서 모였고 목사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가 예배를 인도 했습니다.

가정마다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살아나고 하버드물리학자가 청소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 매일 긴 순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의 궁극적인 능력은 우리의 죽음에서 나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평소 하용조 목사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 목사님이 선각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 큐티를 시작하였고 경배와 찬양을 도입했고 기독교 문서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정체되었을 때 성령 사역

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 했습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온누리 교회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전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찾으실 때 가장 먼저 섬기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목사 (미국 휴스턴 한인침례교회)

* 출처: 온누리신문 (<http://news.onnuri.or.kr>)